

시무식 갖고 본격 새해 업무 돌입

무주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목표 내실있게 추진

무주군은 3일 오전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2022년 무주군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건강한 무주를 만들겠다"며 "민선7기 군정목표인 '무주를 무주답게 하고, 군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군정목표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실과원소 7급 이상, 그리고 읍·면의 경우 6급 이상 직원들이 참여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 미래로 나아가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군은 3일 오전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군은 '세계적인 으뜸관광'과 관련해 구천동에서 사립과 적산산사, 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은 국민이 마음 놓고 찾아오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 더욱 가꿔나갈 계획이다.

또 무주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무주생태모험공원, 안성철연지구, 부남 급경면 관광자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각오다.

'건강가득과 소득농업'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피밤 흘려 재배한 농산물이 재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를 결합해 융복합산업 화합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함께하는 주민복지'는 차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내

실있는 운영으로 행복한 건강 100세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청소년·장애인 역량강화, 여성 권익증진,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지역맞춤 특색개발' 분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을 비롯한 신활력 플러스, 도시재생뉴딜,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자치행정'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무주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 혁신 성장을 이끄는 희망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코로나19 감소와 지방소멸,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주다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선정

무주군이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해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부 이송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주력해 왔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을 비롯해 분만관련 출혈, 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이밖에 군은 출산 후 산모가 적어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단받은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찰료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1인 최대 20만 원을 쿠폰으로 지원한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펼쳐 임신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함으로써 임신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특히 군은 저소득층 임신부를 대상으로 저지귀 월 6만4천 원(24개월)과 조제분유비 월 8만6천 원(24개월)을 지원했으며, 유축기와 수유시트, 이유식제조기 등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사업을 펼쳐 육아용품 구입에 따른 임신부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임신부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펼쳐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 만들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장학속 입학생 모집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진안 장학속에서 2022년도 입학생 68명(남 31, 여 37)을 모집한다.

입사 신청은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2월 중 입학생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입사 자격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전북권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재학생으로 진안군에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생활 정도,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진안장학속은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생활실을 2인실 31개, 3인실 2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24시간 상주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영양 관리를 위해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자 시설 유지 보수 및 청결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장수군청 민원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 중개업소인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이경아)를 선정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약을 기존의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자계약 체결을 유도해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경아 대표는 "부동산 거래시 종이 문서로 계약을 할 경우 분실의 우려, 종이 훼손의 우려가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홍보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태 민원과장은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모든 정책결정 군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자"

진안군은 3일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2022년 임인년 새해 시무식을 비대면으로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춘성 군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인 '신사독행(慎思篤行)'의 뜻을 품고 모든 정책결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하고, 결정된 정책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자"며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2022 진안군 6대 핵심과제인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 인재 육성, 치유·힐링 명품관광 추진, 공감·소통행정 구현, 안전한 진안민들기에 다 같이 동참하여 자랑스러운 진안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 한해 코로나19와 잡다 다



진안군은 3일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2022년 임인년 새해 시무식을 비대면으로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오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 전 분야에 내실을 기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위

기, 지방분권, 기후변화 등 대내외 정책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진안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최근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동향면 신송리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에 이어 1월 1일 새해부터 진안읍 연정리에서 주택 내 설치한 화목보일러(펠릿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송리 화재는 찜질방 용도로 사용하는 조립식주택 한채를 다 태워 피해가 컸으나, 이번 연정리 화재는 신고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택과 연결된 CCTV 화연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화재가 화목보일러에 한정하

여 발생하고 주변으로 확대되지 않고 자체 진화되었으나 또 한 번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다.

화목보일러는 유지비가 저렴하고 난방 효율이 좋지만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에 속한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펠릿과 같은 목재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보일러를 설치할 땐 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주요 안전수칙은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